

학교 밖 교육 2학기 고교생 주말강좌

전북교육청, 전북대·우석대 등 6개 대학서 8개 강좌 운영... 진로 심화 학습 지원
20~26일 고교 2~3학년생 대상 수강생 모집... 수업은 내달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6개 대학과 함께 '학교 밖 교육' 2학기 주말강좌(과목)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 교육은 고등학생들이 진로·적성을 고려해 희망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 등에 한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계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학기 주말강좌는 도내 6개 대학에서 개설한 8개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개설 강좌로는 △국립군산대: 정부와 행정에 대한 이해 △군산간호대: 간호 이해와 탐구 △우석대: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탐구 △원광대: 대전환 경제탐구, 특수체육 기초 실기 탐구, 문화와 인문학적 상상력 등 3강좌 △전북대: 삶과 도덕 심리학 △전주대:

첨단 물리학 등 8개다. 수업은 9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주간 4시간씩 총 3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오는 20~26일 오후 10시까지 공동교육과정 플랫폼(https://beccedit.kr)을 통해 하면 된다. 수강 학생 모집은 접수순 또는 면접(전주대) 방식으로 한다. 모집 결과는 9월 둘째 주 각 학교로 공문을 통해 안내된다. 한편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제도는 올해 도입된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특정 과목을 이수하면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학습 경험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전북, 부산, 대구, 울산, 전남 등 전국 5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과목을 개설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찾아 성장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농업생명자원대학 재학생 등이 최근 남원시 일원에서 농촌봉사 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농민의 노고 직접 느끼고, 함께 땀흘리고

전북대 농생대생들, 남원서 농촌봉사활동
농작물 수확 등 구슬땀... 지역주민과 교류

전북대학교 농업생명자원대학(학장 추병길)은 최근 남원시 일원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활에는 재학생 67명과 교원·교직원, 조교 등이 현장지도자로 참여해 농가 일손을 거들었다. 참가자들은 남원시 덕과면 수촌·배산마을, 보절면 용평마을, 산내면 대정마을, 주생면 낙동마을 등 5개 마을로 나눠 활동했다. 각 마을에서는 농작물 수확과 농지 정리,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활 기간 동안 학생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도왔다. 또한 주민들과 대화하며 농업·농촌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농활에 참여한 정의성 농생대학원·교직원, 조교 등이 현장지도자로 참여해 농가 일손을 거들었다. 참가자들은 남원시 덕과면 수촌·배산마을, 보절면 용평마을, 산내면 대정마을, 주생면 낙동마을 등 5개 마을로 나눠 활동했다. 각 마을에서는 농작물 수확과 농지 정리,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활 기간 동안 학생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문화해설교류탐방캠프 성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단장 최현영)은 지역 다문화 아동의 문화체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해설 교류탐방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IG 지정기탁 후원으로 진행되는 다문화 아동 지원사업 '우리마을 문화다리(문화를 잇다)'의 일환으로, 지난 12~14일까지 진행됐다. 전북대에 따르면 군산, 익산, 남원, 장수, 정읍 등 도내 5개 거점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캠프에서는 3대 세계자연유산 탐방 활동과 문화융합 토크콘서트, 문화 해설 실습, 다문화 리더십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아동들은 세계자연유산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나누고, 포괄과 협력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어린이 문화해설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리더십과 표현력을 키웠다. 또한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융합 토크콘서트에서는 전신 화상의 아픔을 이겨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다문화 전문 강사 최려나(이화여대 박사)의 진행 아래, 아동들이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일상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전북 지역 287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RISE 사업단 StarRiseNet AI 워크숍 참여

전주비전대학교 RISE 사업단(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은 최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2025년 StarRiseNet 컨소시엄 공동교육프로그램 AI 워크숍(해커톤)' 및 성과 공유·확산 포럼'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StarRiseNet 컨소시엄은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연성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등 권역별 6개 대학의 RISE사업단과 신사업사업단으로 구성됐다. 이번 AI 워크숍/해커톤은 AI 활용사례 강의와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팀별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마지막 날 발표와 심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AI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성과 공유·확산 포럼에서는 컨소시엄 참여대학 간 RISE사업 및 신사업사업 운영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최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주)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설천봉 '상제루' 복원에 기술 지원

전북대,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협약 체결
재학생·유학생 현장 경험 기회 제공
교직원·학생 단체행사에 시설 할인 혜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주)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성장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과 성장현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 재학생들은 겨울 시즌 동안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아르바이트 우선 선발 기회를 갖게

됐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고,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전북대 교직원 및 학생 단체행사(OT, MT, 학회 등)에 대해 무주리조트 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전북대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성을 제공해 지역 공헌에도 나선다.

덕유산리조트가 추진 중인 설천봉 '상제루' 복원 공사에 전북대 한옥건축사업단이 참여해 기술자문을 제공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보유한 전문성과 인재를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대표적 상생 모델"이라며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지역에는 전문적 기여를 통해 산학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성장현 대표는 "젊은 인재들과의 협업은 기업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에서 배운 지식·경험, 나에겐 큰 자산”

전주대, 2024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
학사, 석·박사 등 총 81명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최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4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70명, 석사 4명, 박사 7명 등 총 81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은 대표학생 소감 발표를 비롯해 졸업생 소개, 내·외빈 축사, 축하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에는 교직원들이 졸업생들을 위한 축하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돋웠다. 졸업생 대표인 관광경영학과 판만부(PHAM VAN VU, 베트남) 학생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언어와 문화가 낯설었지만, 교수님들과 친구들의 도움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4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전주대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제교류원 심영국 원장(호텔경영학과 교수)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돼 매우 자

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글로벌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한국어 트랙과 영어 트랙을 물론, 한국어학당을 운영중이다. /장은성 기자

을지연습 기간 공직기강 확립

전북교육청, 21일까지 특별점검... 비상근무 위반 등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을지연습 기간인 오는 18~21일까지 도내 교육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비상근무 지침 위반 △기강 해이 행위 △불요불급한 휴가·조퇴·출장 등 복무 위반 행위다.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의 교육 실시 여부와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이

행 실행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공직기강 해이나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흥열 감사관은 “을지연습 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활동이 필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디지털 기기 활용 미래형 수업혁신 준비 ‘착착’

인텔® SFI 마스터 코치 양성 프로그램 2차 연수 성료
도내 초·중등 교사 34명 참석... 수업 우수사례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12일 이틀 동안 서울 인텔코리아 본사에서 '인텔® SFI 마스터 코치 양성 프로그램(이하 인텔® SFI)' 2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와 인텔의 업무협약 사업인 인텔® SFI는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기반으로 한 수업 혁신 프로그램으로, 마스터 코치를 양성해 우수 수업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2차 연수는 도내 초·중등 교사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텔® SFI 스타터 팩을 활용한 미래 핵심역량 중심 수업 설계 실습과 모의 수업, 우수 수업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컴퓨터로 3D 장면을 만들어 보는 가상 실험, 간단한 대화형 프로그램(챗봇)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했으며, 모둠별로 수업을 설계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1차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국·공·사립 유·초·특수학교 1,05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낡고 오래된 놀이시설과 상반기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가 중점 점검 사항이다.

8월에는 시설 관리주체인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교육지원청이 9월 한 달간 지도·점검을 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상반기 안전 점검을 통해 지적을 받은 45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장은성 기자